



레위기 성경 공부 노트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레위기 성경 공부 노트

(이 글은 서안교회 수요, 일요 성경 공부 내용 중 모아 정리한 노트입니다)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305-3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22, 301동 403호

<https://blog.naver.com/shindk55>

shindk55@gmail.com

레위기 성경 공부 노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창일한 사망의 세력 가운데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며,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본토 친척 아버지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롬4:17]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죽은 자를 위한 생명은 화목 제물 희생의 피에 두셨다.
죽은 자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죄를 속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중에서 - 29쪽)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
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찌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
찌니라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
시는 하나님의 제사와 그 규례에 관한 기록이고, 모든 제사의 상징적 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여 준다.

‘번제’는 하나님 제사의 시작이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을 드리며 번제
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하는, 모든 제사의 시작과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번제’의 원어, “olah”를 직역하면 ‘올림제’이다.

‘올림제’는 희생 제물 전부를 불로 태워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는 제사 형식에
서 비롯된 단어로 여겨진다.

이 ‘올라간다’는 의미의 제사는 하나님께 소멸의 형태로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
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다.

이 번제의 세계는 이미 아벨의 제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제사, 이삭을 드리는 아
브라함의 제사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물과 이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 앞에 선 모세는 그 소멸의 현장에서 소멸
을 이기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소멸될 것을 소멸될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소멸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진다. ☞

소제/ 레2:1-3/ 20240424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는 생축을,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삼는다.

번제의 제물은 잡고(죽이고) 소제의 제물은 빵는다.

죽이고 빵는, 일견 잔인해 보이는 규례이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 과정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인생은 소멸의 현장에 있다.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소멸은 결정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제사는 소멸의 법칙에 다스려진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율레이다.

이 하나님의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고 선명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고, 온유와 겸손의 고운 가루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의 백성을 섬겨 주신다. ☞

화목제/ 레3:1-5/ 20240428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췌장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3:3-5]

화목제의 히브리어 어원에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완성이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제이다.

바울 서신의 인사말이 ‘은혜, 평강, 감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제의 열매로 완성된다.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희생의 모든 기름을 태우는 화목제 제사는 피와 기름에 담긴 상징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심은 성도의 삶의 근거이고 지혜이고 권세이다.

이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누리는 완성된 세계이다. ☞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 레4:1-12/ 20240501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찌니 [3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다. *^[민 6:22-27]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화목케 하는 규례인데,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규례에 벗어난 제사를 드린다면 이는 제사장의 범죄이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난 ‘다른 불’로 분향하였을 때, 여호와와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레10:1-2]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제사장의 범죄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업을 입게 하므로 제사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는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온 회중을 위한 제사 이전에 반드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벧전2:9]을 맡은 자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것은 다른 규례, 다른 불,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과 율법의 연약함*^[롬8:3, 히7:18]을 극복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7:27-28]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9:11-12] ☩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레4:27-31/ 20240505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4:27-29]

여기에서 안수(按手) 행위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동일시(同一視) 여기는 표시이다.

그리고 드러진 예물이 열납되는 일은 속죄가 되었음을 증거한다.

흠 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준비된 희생인 것처럼, 안수는 죄인과 희생 제물이 ‘하나’임을 표한다.

예수의 ‘의’와 죄인의 ‘불의’가 만난 곳,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시고 사흘만에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마 3:15]를 이루셨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4:25]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다. 함께 죽는 일 없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갈2:20]

죄를 깨달은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속죄제의 시작은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이다.

안수는 죄를 깨달은 회개된 마음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속죄 양이 만나는 접촉의 몸짓이고 ‘하나’ 됨을 알리는 규례이다.

열 두 해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께서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다.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 속의 모든 규례 속에서 우리와 예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레4:27-29/ 20240508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4:27-29]

여호와의 금령(禁令), 행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범한 자가 지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속죄제가 드러질 수 있다.

범한 죄에 깨우침이 없으면 속죄도 없다. 죄를 깨닫는 일은 속죄에 이르는 회개이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들었으나 말씀을 어기고 금령의 실과를 먹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범죄는 그 실과를 먹은 일이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어버린 일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일이다.

범죄의 진원(震源)은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격리된 사망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다.

죄를 깨닫는다는 일은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서 회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다.

이 깨달음의 회개는 육적 지식이 조립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육적 지식의 허구와 모순과 어두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 속의 영적 지혜이고 열매이다.

마치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일과 같다.
성경은 이 영적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깨닫는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

속건제/ 레5:1-6/ 20240512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5:5-6]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32:1]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구원의 세계를 노래한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것 중에는 범과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것과 자복(自服)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레위기의 시작이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는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 백성의 규례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건제는 화목제와 함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 것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고 온전한 세계*[히10:14]를 누리게 하시는 규례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섬김’에 화답하는 삶이다. *[엡5:19]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귄”을 위한 것이고 사귄은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다.

사귄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교류이다.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뚜렷이 하고 누리게 하는 배경이다.
속건제의 자복은 이 교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다. ☞

부정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यो/ 레5:1-6/ 20240515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यो [레5:3]

허물이 있어야 허물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시32:1]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하고 죄를 깨달은 자가 죄 사함의 구원*[눅1:77]
에 이른다.

부정한 것을 만진 허물과 그 부정을 깨달은 허물이 같지 않다.
부정을 만진 허물을 아는 일은 일차적인 지식이고 그 허물과 부정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이다.

맹세하는 일로 인한 허물도 깨달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 *[마5:33-37, 히6:13-16]

부자(富者)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대노하여 이런 자를 죽일 자라고 하였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법을 아는 자이지만, 그 법 아래 자신은 없었다. *[갈6:1]

선지자 나단은 이러한 다윗에게 ‘죽일 자’에 속한 줄 알게 하였다. *[삼하12:1-15]
그리고 시편 51편은 죄를 깨달은 자의 노래이다. ☞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레6:12-13/ 20240529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소멸될 것을 소멸될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그 소멸될 것에 메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벧3:3]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고 기본일텐데, 꺼지지 않는 번제단과 그 불의 세력에 다스려진 마음이 시온좌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레7:28-34/ 2024060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7:34]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규례이다. *[고후5:17-21]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하신 예수님의 마음*[벧2:5-8]과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권세이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받은 뭇, 요제로 드리는 희생의 흔든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희생의 우편 뒷다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응식(應食)이고, 요제와 거제는 화목케 하는 능력의 근거를 제시하는 상징적 시그널이다.

여호와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그를 결박하였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었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일 수 있었다. *[삿15:14-

그러나 삼손은 그 큰 구원의 현장에서 심히 목말라 하였다.

왜 삼손은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삼손 자신의 힘으로 일천명을 상대한 결과가 기진한 목마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능력은 나귀 턱뼈에 있는 것도, 삼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권능에 있다.

흔들리는 가슴과 들린 뒷다리에 능력이 있지 않고, 이 제물을 쥔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화목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

피를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레8:22-24/ 2024060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레8:23]

죄인들을 위한 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형상으로 성도들을 이끄신다. * [히4:14, 7:26, 9:11-12, 벰전2:5,9]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세밀한 대속의 율례가 담겨 있다.

그 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과 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는 규례는 구원에 이르는 * [히9:28, 벰전2:2] 성도의 삶과 지혜를 전한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히9:22]

오른 귀의 더러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기 의로 진리를 거부하는*[롬1:18, 10:3] 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중한 물건이 아닌가?

에덴에서 여자는 뱀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아내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가중한 첫째 아담의 세상 끝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

나답과 아비후-1/ 레9:24, 10:1-2/ 20240609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9:24]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10:1-2]

불은 소멸하는 세력이다. *[히12:29]

불소멸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세계이다. *[창6:3, 롬8:7, 마25:41, 히
10:27]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과 피의 규례를 집행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여호와와 불에 삼킴을 당하였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마
15:8, 사29:13, 요4:23-24]

향로에 채울 여호와와 명한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어야 하고 *[레16:12] 하나님의
육에 대한 판정을 담은 불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치실 가증한 대상이다.

오늘날 제사장 된 성도들의 마음에 소멸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채워져 있다.

이 분별이 거룩한 삶을 누리는 힘이다. ㄹ

나답과 아비후-2/ 레10:9-11, 15/ 20240612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 دن 뒷다리와 혼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찌니 이는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레10:9, 15]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향로에 여호와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을 때, 여호와와의 불에 삼킴을 당하였다.

이 극렬한 하나님의 처단은 은혜와 교회의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인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다른 불의 분향은, 오늘날 복음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다른 복음'*(골1:6-9)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예표가 될 수 있다.

포도주와 독주가 육적 세력을 복발(復發)하게 하여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세력으로 복음을 업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할 성전의 중심에서 여호와와의 전을 등

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지극히 가증한 이십 오인의 장로를 보았고,*[겔8:16]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24:15]

인위적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가증한 것으로 취급된다.

요제와 거제물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자기 세력이 거세된 제사장의 형상이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이다. ☞

신령한 자/ 고전2:12-16/ 20240616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2:12-14]

'신'령한 자'의 헬라어 '프뉴마티코스'는 '육체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서 소외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육체적이지 아닌', 영적인 삶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신령한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이다.

신령한 자로의 시작은 세상의 영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는 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자는 신령한 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나, 신령한 자는 자신 속에 경험된 믿음을 근거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를 분별할 수 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5]

신령한 자는 땅과 하늘, 저주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모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다. ✕

부정한 짐승/ 레11:44-47/ 202406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느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레11:44-45]

하 하나님이 흠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은 아담에게서 나왔다. *[창2:19]

그 이름들이 짐승들의 다양한 습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흠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지은 짐승들의 이름은 아담에게 있는 육(肉)적 성품들을 근거로 표현된 것이라.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모든 짐승의 두가지 성품은 부정하든지 정한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부정한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 *[사64:6]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이 부정한 아담을 위하여 흠없고 정한 양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방주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을 때 모든 기식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 생명의 '새 날'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돼지가 양처럼 살 수 없다.

부정한 짐승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정한 짐승이 될 수 없다.

부정한 짐승이 정한 세계를 누리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정한 세계'는 '부정한 것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이다. ☺

자녀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 레12:1-7/ 202406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 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12:4]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칠일 동안 부정하고 남아(男兒)는 삼십 삼일, 여아(女兒)는 육십 육일이 지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산혈을 깨끗케 하고 정결함을 입는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욥25:4]

내가 최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51:5]

오늘날 인간 중심, 인간 중시(重視)의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출산을 부정한 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러나 이미 부정한 인간에 관한 이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없다.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찌니라 [출13:13]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한 존재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도 부정하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속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는 번제와 속죄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

문둥병/ 레13:1-6/ 20240626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찌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
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13:2-3]

나 병균의 활동이 피부에 나타나면 환자의 몸은 빠르게 썩어 사망에 이른다.
인생의 년수가 칠 팔십이라도 그 결과는 무덤에 들어가 썩게 된다. *[사90:10]

땅에 머무는 시간이 백년이든 천년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경점(更點)이다.
결국 썩게 된다는 결과를 근거로 모든 인생은 나병 환자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나병균과 같은 부정한 세력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덮고 다스릴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구
원을 이루셨다.

레위기 13장 나병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하는, 제사장의 관찰 아래
판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나병 환자는 피부 아래 감춰진 부정한 세력이 표출되어 부정한 활동으로 나타난 자이다.

만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면, *^[롬1:23]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은 영적 나병과 같은 부정한 세력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민12:1-10],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거룩한 직분을 무시하고 분향하는 웃시아*^[대하26:19]에게 문둥병이 발하였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밖의 인생이 아니라 썩을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3:4] ✞

다 희어진 자/ 레13:9-16/ 20240630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 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찌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레13:12-13]

오랜 문둥병자들 중에 문둥병이 크게 발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퍼져 '다 희어진 자'는 '정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판정을 아는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에 '다 희어진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 희어진 자의 세계'가 육신의 열망으로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도리어

육신의 소망이 끝이 난 곳,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
치소서 하였나이다 [시41:3-4]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편 65:3]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께 나와 긍휼을 구하였을 때, 예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하였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의 온 몸이 희어지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왔다.
예수는 깨끗함을 받은 아홉을 찾으셨고,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구원을 증거하여 주
셨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정결하여 지는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
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 희어진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
다.

'다 희어진 자'가 정결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자는 정결케하신 하나님께 돌아오
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또 하나의 '다 희어진 자'의 이야기가 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만나 익은 곡식을 거두듯이 여인을 구원으로 이
끄셨다.
그리고 제자들에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 [요4:35] ㄹ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찌니라 [레13:52]

하 나남께서 아담에게 입혀 준 '가족 옷', 아곱의 몸을 가려 준 염소 털, 여리고
정탐을 가려 생명을 보존하여 준 '삼대'*[수2:6]와 씨와 날로 직조된 세마포 제
사장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심판과 자비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구원의 옷'*[로4:7]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구속의 예
표이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완전한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히11:26-29], 이는 성령
을 훼방하는 일이 된다.

이 죄악은 부정한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육신을 대속한 언약에 대한 죄
악이다. *[엡6:12]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6:4-6]

아직 맛 보지 못한 자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맛 보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
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없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
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
라 [히6:7-8] ☞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14:4]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이다. 문둥 병자도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문둥 병자'이어야 한다.

문둥 병자이기만 하면, 정결케 되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백성의 진 밖으로 쫓겨난 문둥 병자 중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문둥 병자는,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판정에 다스려진 문둥 병자이다.

죄를 깨닫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사함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요 1:16]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부정하고 "정하다!" 말씀하시면 정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감각 없이 아버지를 떠났다. *[눅15:11-32]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하여 부정한 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의 모든 부정을 능히 덮을 '은혜의 세계'가 둘째 아들 위에 임하였다.

문둥 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은 '전신 문둥 병자'로 제사장의 판정을 받은 날이다.

*[호1:10]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23]

정결함을 위하여 준비된 정한 산 새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시이고, 희생 제물과 함께 준비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엡1:10]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의 예표이다. ☞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찌며
[레14:5-7]

문둥 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는 내밀(內密)하고도 세밀(細密)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살아 있는 정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희생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어 보내는 아사셀*[레16:8]을 위한 염소
처럼 들에 날려 보낸다.

하늘로 오신 분께서*[요3:31] 파상(破傷)해야 마땅한 질그릇*[렐18:4]과 같은 부정한
자를 위한 피를 흘리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며*[히1:3], 부활하시므로 산
자*[고후4:11]들의 능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과 말씀으로 인한 정결과 성령으로 인한 능력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보배'의 세계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4:7]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다.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여기는 마음,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보
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23]

은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영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15:3-5]

'유출병'의 한자어 '유출(流出)이 그렇듯이 원어적 의미도 "흘러 나오다"이다.

사람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다양한, 어쩌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부정적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판정은 더욱 확고하고 치명적인데, 사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창6:5],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사59:7],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규정한다. *[마15:18]

그러니까 유출병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더러움의 세계를 설명하여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의 육체는 마치 구정물통 같고*[욥14:4], 더러움을 방치하고 용납하는 세계이다. 이 더러움이 흘러 나오면 그 더러움에 접촉되는 것마다 함께 더러워진다.

노아 때 홍수는 이 모든 더러움에 대한 심판이고 경고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3,7]

노아를 물에서 구원하는 방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3:21]

육체의 더러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분별의 선한 양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옮겨주셨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후 7:1] ✞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레16:7-10/ 20240721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찌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찌니라 [레16:8-10]

레 위기 16장에 기록된 일년 일차 드리는 대속죄일, 7월 10일은 비로소 둘째 장막*[히9:7]의 휘장이 열리는 큰 안식일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수염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고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결정되고, 그 결정이 백성의 마음에 함께 이루어지므로 온전한 속죄를 이룬다.*[레17:1] 만일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백성은 죄에 매인 삶을 산다면 반쪽 속죄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사 44:22]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러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의 속

죄소(시은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른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대신 지고 온 회중을 지나 광야에 보내어 무인지경에 이르도록 한다.

아사셀(אֲסַזֵּל : az-aw-zale' : 아자젤)은 '염소aze' + '가다aw-zal'의 합성어이다. '내 어보냄의 염소', '온전한 제거', '속죄의 염소' 등 여러 해석이 있으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소들의 상징적 '역할'을 통하여 아사셀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역할은 '죄를 지고 가는 구원의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메신저의 형상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룬 곳은 광야, 무인지경, 땅 끝, 세상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리라.*[시103: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성소의 휘장을 열어 놓아 영원한 속죄의 근거와 완성을 증거하고*[히9:12,20, 마27:51],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마치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팔 벌리고 계신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사65:1-2] 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17:11/ 20240724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17:11]

나 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창일한 사망의 세력 가운데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며,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본토 친척 아버지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롬4:17]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죽은 자를 위한 생명은 화목 제물 희생의 피에 두셨다.
죽은 자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죄를 속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은 '살리는' 권세로 일하신다.
아담을 위한, 짐승의 피를 흘려 얻은 가죽 옷에 담긴 구원의 권세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의 권세이다.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8] ☞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며/ 레18:1-6/ 20240728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18:3-5]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아래 행하는 자들이다. * [창26:5, 시119:56]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인위적 법도와 대치(對峙)된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 [출5:2]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세력 아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
하시고 * [신7:8]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옮겨 주셨다.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법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대치된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와 공격적인 삶"이다.

이 삶의 형태는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과 오늘날 이 세상과 모든 육체에 충만하다.
이 풍속을 용납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하는 삶이다.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 [창46:34], 육신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한다. * [롬8:8]

그러나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스스로 존재
할 수 없는 자신, 깨지기 쉽고 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창조주의 법도에 다스려질 수 있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
는가?

하나님의 법도에 이끌리는 자의 삶의 형태는 육신이 원하는 방향을 거스린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시
119:71-73] ㄴ

"너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레18:6]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을 씻기고, 입히고, 꾸미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제사를 통하여 씻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몸을 하나님의 규례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32: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에 이끌리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연고임을*[롬9:31-32] 성경은 밝히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범치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육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과 혼인 관계로 비유해 적어 놓은 기록이다.

광야에 버려진 비천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적신을 씻으시고 입히시고 꾸미시고 면류관을 씌어 왕후의 지위에 올려 놓으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게 되어 그 몸이 세상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겔6:15]

이 상황은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도 여전하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빚으로 여기고*[롬4:4] 법과 행위에 갇히게 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3]

하나님의 교회가 법과 행위에 갇히면 가식과 위선이 옷이 되고 규모와 형식에 집착하는 종교 활동 단체가 된다.

적신이 적신의 행위로 별거벗음을 가릴 수 없다. *[사59:6]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사41:14]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베엘로 올라갈 때*[창35:3], 육체를 위한 신상과 장식품을 버리고 오직 긍휼과 약속의 옷으로 입히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

너희는 거룩하라/ 레19:1-4/ 20240807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19: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집약된 요구이고 명령이고 최후 통첩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2:3]

'거룩'이라는 말은 '안식'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인 일곱째 날의 압축된 설명이고 얼굴이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되었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거룩함과 영원한 안식은, 사람(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지 다듬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속3:9, 히10:10]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사66:8]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자라난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세계에 참여하라, 누려라"는 의미이고, 듣고 참여하고 누리는 자의 상급이고 성장이고 분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레위기 19장에서도 기록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것을 위하지 말고, 화목제 희생을 열납되도록 드리고, 재물을 먹는 날의 규례는 소유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법도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벧전1:15-16] &

몰렉/ 레20:1-5/ 2024081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레20:2-3]

'각도로 새겨 만든 우상'*[출32:4]은 사람의 원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인간의 본능에 속한 종교성이 만든 우상 중 '몰렉'이 있다.

'몰렉'은 '왕'이라는 의미로 '다스리다'는 어원을 가진 암몬 족속의 신이다. 그리고 특

별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규례에 등장하는 우상이다.

그러나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몰렉을 섬긴 많은 흔적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 *[왕하 16:3, 왕하21:6, 렘32:35, 왕하23:10]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과*[창22:2] "초태생은 내 것이라"는*[출13:2] 말씀의 규례는 일견 몰렉의 제사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몰렉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가 구별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인간을 세우기 위하여 인간을 희생하는 몰렉의 제사에 비하여, 하나님의 제사는 인위적인 것이 거세되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아레'의 세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믿음의 주체인신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셨고*[히 11:17-19], 결국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역이시다.

그러나 몰렉의 제사, 대속의 어린 양이 없는 제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최선*[미6:7]을 요구하는 지극히 가증한 제사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됨을 원치 않는 패역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다. *[삼상8:4-20]

이 몰렉의 제사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어떤 의미의 교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고후13:3],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요일4:10]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종교 활동은 몰렉의 제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4-5] ㄴ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레21:1-3/ 202408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21:1]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곧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의 일을 맡는 특권을 갖는다.
특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새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골1:13]
그리고 이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들의 길을 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롬8:32, 벰전4:10]

신분은 출생으로 결정되지만 그 신분을 누리는 특권과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신분은 얻었지만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히6:7-8]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제사장 신분을 보존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규례이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에 속한 것들은 생명을 잃은 주검, 부정한, 버려진, 더럽고, 더럽게 하는 물건 등이다. *[민19:11, 레19:28, 시106:28, 마8:22]

영혼이 없는 몸은 주검이고 오물처럼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지 장식하거나 경배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다. *[요5:25, 롬6:4-7]

그러나 예수께서 준비하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죽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얽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마12:43-45]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벧후2:20-22]

여기에서 더러움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일이다. *[롬1:24]

제사장이 죽은 자와 접촉으로 더러워지는 일은 오늘날 육신의 생각을 용납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육체를 세우는 샅꾼 목자를 통해 나타난다.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3:19]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는 오늘도 듣는 자에게 유효하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발라 제하여 버린다고 경고하셨다. *[말2:1-3]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7:1] &

내 성호를 욱되게 함이 없게 하라/ 레22:1-3/ 202408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욱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22:1-3]

하 나님의 이름을 욱되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성물을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을 받으실 수 없다. *[요9:31, 나훔 1:3]

하나님께서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창4:4-5]

의(義)와 선(善)과 거룩(聖)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요일3:12, 막10:18, 레11:45, 마 12:35]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고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대상29:1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거룩함을 입은 자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고전11:2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하는 자의 시작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신의 눈에 들보를 기억하고 자신을 먼저 살피야 할 것이다. *[마 7:3, 갈6:1]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하는 일은 온전한 시각을 얻는 일이다. *^[눅 11:34-36, 사40:12]

자기를 발견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할 수 있다. *^[마16:24]
그러나 자기 위치를 잃은 천사*^[유1:6, 사14:12-15]처럼 자신의 근본을 잃어 버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외식적이고 가증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4:3]

거룩함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을 얻어 누리고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

여호와와 절기/ 레23:1-3/ 202408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23:1-3]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여호와와 절기'가 반포된 후 1500년이 지난 때, 절기 속의 예시를 성취하실 어린 양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으나 '여호와와 절기'는 이미 세상적이고 인위적인 '유대인의 명절'로 변하여 공허한 종교적 형식으로 박제(剝製)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양의 현현(顯現)으로 자기 백성 앞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믿어진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한다.

창세의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 일하신 열매가 '영원한 안식'이 되었고,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구체적인 내용인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셨다.

제 칠일 안식이 옛새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축된 것처럼, 참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장막절)로 세팅되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마음에 옛새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는 삶을 산다. *[출12:14] ☞

초막절/ 레23:34-43/ 2024090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23:34]

○ 대력 7월은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10일 대속죄일, 15일부터 초막절 절기가 있는 달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1년 3 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신16:16]

유대력 7월은 태양력 9,10월이고 현대 유대력으로는 1월이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의 절기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의 초막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탄생과 구원의 근거를 전하고, 무교절은 구원의 약속을 견고히 한다.

초실절은 성령의 역사를 예시하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의 결론이고 완성이다.

봄과 여름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대속죄일에 이르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열매와 수확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을과 같은 절기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임시적인 초막이다.

사람의 몸도 잠시 입고 있는 장막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1:24-25]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자신을 초막으로, 장막성으로 여기는 나그네들이고 이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감춰 놓아 보호하시는 보호들이다. *[마13:44]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27:5]

오늘날 이 나그네의 초막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이고, 반석 위에 지은 안전한 처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나타내는 실체이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며 [레24:2]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 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찌니라 [레24:16]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과 '쳐서 만든 금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낸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구워 낸 열두 진설병은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물린 열두 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열두 지파, 곧 오늘날 하나님 교회의 예시이다.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고, 매안식일 진설하는 떡의 예식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규례이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은 이 지극히 거룩한 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는,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는 사망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거룩한 삶에 관한 규례 다음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기록되었는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남편은 애굽 사람이다.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였다.

결국 슬로밋의 아들은 진 밖으로 끌려가 온 회중의 돌에 맞아 죽었다.

슬로밋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피와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다.

사람의 피는 무익하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있게 한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그 피의 구속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누리는 지혜와 능력이다.

'감람을 짖어 낸 순결한 기름'과 '쳐서 만든 금 등대'와 '고운 가루로 구워 낸 진설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규례이다.

대속의 피 없이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슬로밋의 아들은 '자기 하나님'을 저주 하였다. *[15절]

이 행위의 진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히 10:19-29]

하나님 앞의 축복과 저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 ☞

희년(禧年), 요벨의 해/ 레25:8-12/ 20240911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 구 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와 완성은 '안식'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쉬심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이다. *[히4:10]

참 안식의 의미와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한다. *[창2:1-3]

첫 사람 아담을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저주 받은 땅은 인생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는 수고와 흠으로 돌아가는 허탄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하였다. *[창3:18-19]

그러나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는 일이다.

안식년은 육년 동안의 경작을 멈추고 제 칠년의 땅으로 쉬게 하는 규례이다.

그리고 일곱 안식년이 되는 사십 구년을 계수하고, 제 오십년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으로 정하였다.

희년의 원어 요벨(yo-bale)은 '양각(羊角)나팔 소리'의 의미를 갖는다.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졌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죄의 사슬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명하였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3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은 '내 것이 있는 줄 아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것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의 안식이다.
이 안식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여섯째 날의 회복이다.

나팔 소리에 실려 퍼진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귀에 들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또 한번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31]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 15:52] ☞

할레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레26:1-2,41-42/ 20240915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찌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26:1]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레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레26:41-42]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의 축복'이 아닌 '불순종의 저주'에 이르게 하였다.

비닐 봉지에 숯불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될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잠6:27-28]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순종하는 백성'에 있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의 회개'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11:32]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의 본성은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에 할례를 거부한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자기를 위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과 같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일,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별과 능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의 사람인 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39:4-6]

하나님의 할례와 안식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안식의 세계로 옮겨지도록 거듭나는 일은 결코 인간 수고의 결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의 성공적인 순종을 자신의 수고의 숨소리와 함께 나타내려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깨달아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 [시14:3]

자신이 순종하여 구원의 삶을 사는가? 긍휼을 입어 구원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 [시40:11]

깨달음도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결과이지 사람의 지혜와 수고의 열매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1:21]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서원자가 가난하여 감당치 못하겠으면/ 레27:8 20240918

번제로 시작한 레위기는 마지막 장(章)에 이르러 서원(誓願)과 생축의 첫새끼와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과 여호와와 십분의 일에 관한 규례를 전하고 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지를 아는 지혜를 성경은 전하고 있다.

‘번제’의 원어 직역은 ‘올림제’이다.

드리는 제물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제사가 번제임을 생각할 때, 육(肉)에 속한 것이 소멸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사의 규례에서, 그리고 서원과 바치는 규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서원’의 원어 ‘네테르’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맹세를 뜻한다.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이지 하나님의 명하신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드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드리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함께한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

이 처방 안에 은혜의 세계가 숨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감추어 놓은 은혜의 세계이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막5:25-29]의 이야기는 이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씀이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에게 예수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아무 것도 없는 여인은 예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었다.

하나님께서 소문을 듣게 하시고, 옷에 접촉만 하여도 병이 나았다는 믿음을 가난한 여인에게 주셨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으실 수 없다.

혈루증 여인의 인위적인 모든 소망이 끝난 시공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마음을 받으신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6-8]

하나님의 인자와 모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편 136:23-26]



<https://blog.naver.com/shindk55>